

# 2002년도 1/4분기 오리업계 전망

— 조 문 규 국장

## 머 리 말

오리업은 소비자의 기능성 육류를 선호하는 육류소비 변화에 힘입어 매년 큰 폭으로 소비가 신장되어 왔다. 오리고기 소비신장에 따라 국내 오리사육량 역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오리업계는 배합사료 생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사육량을 분석해 보면 전년에 비해 17%내외 사육량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육량이 증가되는데 반하여 오리고기 소비는 여름철을 전후한 소비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오리전염성 간염의 발병보도와 중국에서 수입된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병원균의 검출 등은 오리고기 소비를 크

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따라서 사육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또 중국산 오리고기의 대량수입등이 맞물리면서 여름철 오리고기 소비 성수기에 오리출하일령 지연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한 번 하락한 오리가격은 업계의 새끼오리 입식량 감축, 부화장들의 종오리 사육량 감축, 정부의 수매비축 자금지원에 의한 가공유통업계의 수매비축 등 자구책 마련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과거 오리업계의 경기는 오리고기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생산이 줄어드는 시기에 가격이 오르고 생산이 많아지는 시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즉, 여름철에는 비교적 가격이 낮아지고 겨울철에는 가격이 오르는 현상

을 보여왔다. 또 호황기가 지난 다음해에는 가격이 비교적 약세를 나타내고 다음해에는 불황이 찾아온후 사육량이 줄어들면 다음해에는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99년이후 오리업계의 경기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월별 가격의 큰 흐름인 생산이 많아지는 시기에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이 줄어드는 시기에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기존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오리고기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비교적 높은 시세 비수기인 설 및 추석명절을 전후해서는 오리가격이 매우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 오리가격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등락의 폭이 깊어지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오리가격이 호황의 골은 짧아지고 불황의 기간은 더욱 길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리의 생산기술이 부화장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절별 편차가 크게 줄어들고 부화장들이 대형화되면서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대형 계열화 사업체들의 사육비중이 높아지면서 오리생산 및 유통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 1. 1/4분기 육용오리 사육전망

을 1/4분기 오리사육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종오리 사육량 특히 9월 이후 종오리 사육량 변화와 후보종오리 입식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내 오리업계는 후보종오리에 대한 입식상황을 추정할 수 없어 향후 새끼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기 힘들며 단지 현재 사육되고 있는 종오리의 사육량에 기초하여 향후 새끼생산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 다소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표1〉은 농림부가 집계한 지난 2천년도 및 2001년도 산란사료 월별 판매량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월별 산란 종오리의 사육량 추정에 의한 새끼생산량을 예측하는 동시에 향후 육용오리 사육량을 추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1) 2001년도 생산량

지난해 11월말을 기준으로 산란사료 월별 판매량은 총 22,518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의 종오리 사육량이 2천년도에 비해 16.5% 증가되어 월 평균 암컷 종오리 사육량이 22만7천수로 전년도 월평균 사육수수 19만5천수에 비해 3만 2천수내외 증가됐음을 알 수 있다.

또 여기서 생산된 월평균 새끼생산량은 산란율과 부화율을 65%로 추정시 월 2백88만수, 육용오리 출하율을 90%로 계산시 월 2백 59만수내외의 육용오리가 생산출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육용오리 출하량은 일일 평균 8만6천수내외가 생산 출하된 양이다.

이같은 자료를 기초로 지난해 암컷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생산량은 5천3백19만4천개, 새

끼오리 생산량은 3천4백57만6천수, 여기서 생산된 육용오리 출하수수는 3천1백11만8천수 내외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2) 1/4분기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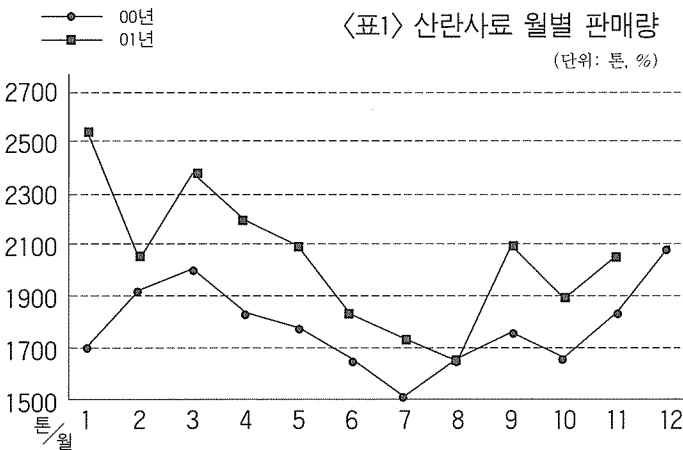
① 새끼오리 생산

지난해 11월 산란사료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란하는 암컷 종오리 사육량을 추정하면 <표2>에서 보는바와같이 22만5천3백수 내외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월 암컷 종오리 사육량21만1천4백수에 비해 6.5%, 전년동기 20만3천수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기초로 추정된 12월 새끼오리 생산량은 2백59만8천5백수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어 전월에 비해 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1%내외 새끼 생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월 새끼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산란사료 판매량 자료가 수집되지 못해 정확한 예측이 지난하다. 단지 지난해 1월 산란사료 판매량이 큰폭으로 증가했으나 당시 폭설로 인해 종오리 사육농장의 피해를 입었던 점을 감안

<표1> 산란사료 월별 판매량 (단위: 톤, %)



하여 당월의 산란사료 판매량을 제외하고 지난해 1/4분기 평균 산란사료 판매량이 2000년도에 비해 12%내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산란사료 판매량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5.4% 증가하여 이를 감안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 1/4분기 산란사료 판매량을 추정해 보면 전년에 비해 12-15%내외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의 산란사료 판매량은 2,370톤내외에서 판매 될 것으로 추정되며 올 1/4분기의 산란사료 판매량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된 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추론에 근거한 지난 12월의 암컷 종오리 사육 예측량은 11월에 비해 16.7% 증가된 26만3천수내외가 사육될 것으로 추정되며 올 1/4분기 역시 생산에 따른 큰 변수가 없는 경우 암컷 종오리 사육량은 26만수 내외에서 사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올 1/4분기 새끼생산량은 2001년도 4/4분기 평균 생산량 2백64만수와 비슷

한 2백65만수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나 전년 같은기간 평균 생산량 2백54만6천수에 비해서는 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② 육용오리 생산

〈표2〉에 추정된 육용오리 출하량은 10월과 11월의 육성출하율을 새끼오리 입식량의 90%, 12월부터 2월까지는 85%, 3월 이후는 90%로 추정된 물량이다. 이를 기초로 12월의 육용오리 출하량은 2백27만8천수로 전월에 비해 5.7% 감소했으나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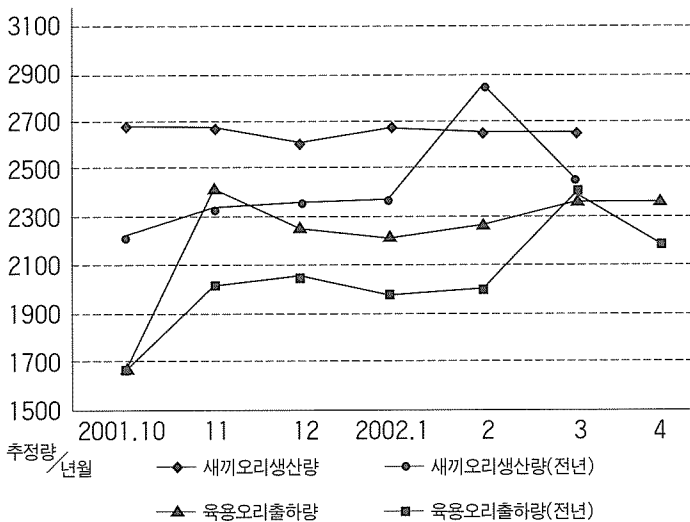
또 올 1월에는 2백20만8천수의 육용오리가 출하될 것으로 추정돼 전월에 비해 3.1% 감소하고, 전년에 비해서는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월의 출하예상량은 2백25만6천수로 전월에 비해 2.1%, 전년에 비해서는 13%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3월의 육용오리 출하예상량은 2백38만8천수로 전월에 비해 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3월의 육용오리 출하량은 1월의 폭설피해에 의한 출하감소

# 전망대

량이 반영되지 않은 출하량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4분기 육용오리 생산 출하량은 전체적으로 월평균 2백25만7천수 내외가 생산출하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분기 평균 생산량 2백14만7천수에 비해 5%,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5.7%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월별 육용오리, 새끼오리 생산량 추정량



## 2. 1/4분기 가격전망

### 1) 새끼오리 가격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 새끼오리 가격은 1/4분기에 평균 7백50원대를 유지하여 전분기 및 전년 동기가격 6백원에 비해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해 1/4분기의 새끼생산량은 전분기에 비해 23% 증가하고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4% 감소하는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큰폭으로 오르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 1/4분기 새끼오리 생산 예측량은 전분기에 비해 0.3% 증가에 그치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올 1/4분기 새끼오리가격은 생산량과 전년도 형성된 시세를 감안하면 1월에는 전월과 비슷한 시세를 유지한 후 2월과 3월에는 큰 폭으로 오

( )는 추정치, \*는 전년생산 및 출하량

월 별	2001.10	11	12	2002.1	2	3	4
산란사료 판매량(톤)	1,905 *1,659	2,030 *1,829	(2,370) *2,098	(2,370) *2,539	(2,370) *2,039	(2,370) *2,368	(2,370) *2,919
암컷종오리 사육량(천수)	211.4 *184.1	225.3 *203	(225.3) *232.8	(225.3) *281.8	(263) *226.3	(263) *262.8	(263) *243.2
새끼오리 생산량(천)	2,682.9 *2,222	2,680 *2,334	2,598.5 *2,341	(2,654) *2,350	(2,654) *2,844	(2,654) *2,444	(2,654)
육용오리 출하량(천수)	1,670 *1,672	2,414.6 *2,000	2,278 *2,053.9	2,208.7 *1,990	(2,256) *1,997	(2,388) *2,417	(2,388) *2,200

름세를 나타낼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육용오리 가격이 연말 오리고 기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불황 역시 장기화되면서 사육농가들의 입식 열기 또한 크게 줄어들어 새끼오리 가격이 전년과 같은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새끼오리 가격이 2월 들어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폭설에 의한 새끼오리 생산량이 줄어들어 발생됐기 때문이란 점을 감안하면 전년과 같은 오름세 유지는 힘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최대의 부화장 2군데가 계열화업체에 인수되어 새끼오리 생산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타 계열화업체

들은 새끼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어 새끼가격은 생산과 상관없이 오름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올해도 발생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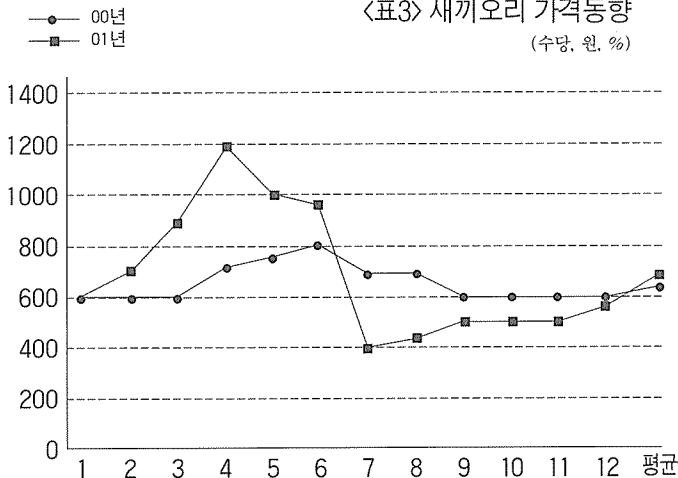
## 2) 육용오리 가격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01년도 1/4분기 산지육용오리 평균 가격은 4천1백83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6.7%,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4.5% 오름세를 나타냈다. 당시 1/4분기 육용오리 평균 생산량은 1백80만5천수로 전분기 출하량 1백61만3천수에 비해 11.9% 증가한데 반해 전년동기 출하량 2백12만8천수에 비해서는 15% 출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형성된 시세이다.

올 1/4분기 육용오리 평균 출하예상량은 2백28만4천수로 전분기 출하량 2백12만수에 비해 7.7% 증가하고 전년동기 출하량 1백80만5천수에 비해서는 무려 26.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올 1/4분기 육용오리 가격은 특별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현재 오리고기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작용하지

〈표3〉 새끼오리 가격동향  
(수당, 원, %)



않는 한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육용오리 가격이 전년과 같이 회복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 1/4분기의 육용오리 출하예상량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데다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출하량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말연시를 전후한 오리고기 소비가 다소 나아지는 시기가 지나고 2월에는 소비감소에 영향을 주는 설 명절이 끼어 있어 이를 전후한 오리고기 소비는 크게 줄어드는데 반해 생산출하량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혹시 올 1/4분기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오리고기 소비에 영향을 주는 호재로 인해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 이후 업체에서 수매 비축한 물량이 많은데다가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수입량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산지 육용오리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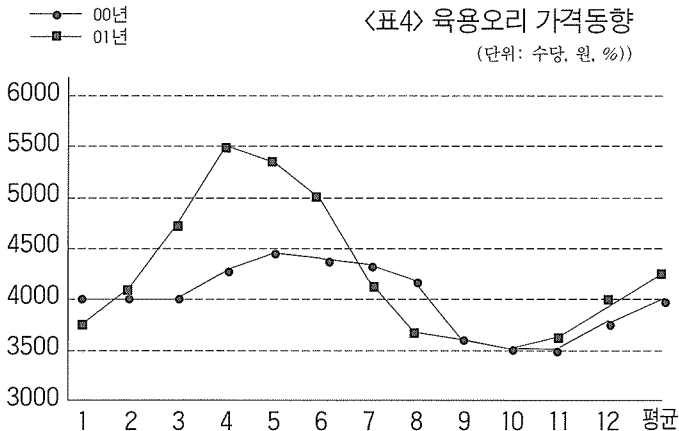
## 3. 오리업계 전망

지난해 오리사육업계는 하반기 경기불황에 의해 개별오리 사육농가들의 사육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중부지역 농가들의 사육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반해 오리의 주산지인 전남북 지역은 계열화업체들이 사육량을 늘리거나 기존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육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부화업계 역시 소규모 부화장들은 사육량을 축소하거나 기존물량의 범위내에서 새끼생산을 끌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중규모 및 대형 부화장들은 계속해서 생산량을 확대해 새끼생산 비중이 대형부화장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육업계의 변화에 의해 오리고기 유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표4〉 육용오리 가격동향  
(단위: 수당, 원, %)



즉 수도권 지역의 자가도축에 의한 오리고기 유통업체들이 점차 줄어들고 전남북지역의 주요 계열업체들이 생산한 도압된 물량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부권지역의 오리사육량이 크게 줄어드는 겨울철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던 예년의 현상이 올 겨울철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올 1/4분기 오리업계는 국내 최대의 오리계열화업체에서 국내 최대의 부화장 2군데를 인수 합병하여 완전 수직계열화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오리사육 및 유통업계에 일대 변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 새끼생산이 조정에 들어가 사육량이 줄어들어 생산과잉에 따른 육용오리 가격이 3월 이후 다소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새끼오리 가격 역시 육용오리의 가격 및 새끼생산량에 상관없이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중소규모 부화장들의 새끼생산이 다소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하반기 이후 생산과잉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사육업계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개별농가들의 사육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계열화업체들의 사육비중은 더욱 높아지면서 유통업계 역시 도압된 물량을 받아서 유통하는 소매유통업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올 1/4분기 오리업계는 전혀 예상치 못하던 부화업계의 변화에 의해 사육, 부화, 유통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변화가 기존 오리업계의 상재된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질적인 향상에 의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기를 희망한다.